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도 전방위 정비

도, 초대규모 앵커기업 유치 위해 투자보조금 한도 상향 현대차 9조원 투자 신속 이행 지원 위해 투자여건 강화 고용보조금 상향·취득세 감면 연장 등 기업 부담 경감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도 전반의 정비에 나섰다. 정부의 지방투자 확대 기조와 맞물려 대기업의 조 단위 지방투자가 잇따르면서 지역 투자 유치의 기회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도는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협약을 비중을 삼아 초대규모 투자 유치를 본격화하는 한편, 보조금 한도 상향·세제 감면·특구 제도 확대·투자 인프라 강화 등 인센티브 전 영역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전북자치도는 초대규모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보조금 지원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지방투자 확대 기조와 맞물려 대기업의 조 단위 지방투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앵커기업 유치는 협력사 동반 유치·지역 공급망 형성·대규모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파급효과가 크다.

1조원 이상 투자기업 1개사의 유치가 수심 개 중소기업 유치에 맞먹는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인센티브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도는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9조원 투자협약 등 1조원 이상 초대규모 투자가 현실화되는 상황에 맞춰 기존 최대 300억원 수준의 지원 한도를 1,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이번 1,000억원 한도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초대규모 투자를 검토하는 앵커기업과의 유치 협상에서 전북이 실질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며, 2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가 이행될 새만금산단에 후속 기업들의 투자가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공간·부지 등 투자여건을 전방위로 강화한다.

먼저 지난 15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6.0㎢, 181만평)를 제2

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다.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받으며, 사업시행자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10년간 면제되는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도는 새만금산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도 지정할 계획이다.

작년까지 전주, 익산 정읍, 김제, 남원 등 5개시 주요 산단을 중심으로 3.44㎢(104만평)의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여 특구 내 투자기업에게 보조금 추가지원, 세금감면 등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현대차 투자지역을 중심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하여 현대차를 비롯한 향후 투자 기업들에게도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들의 초기 투자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투자를 위해 대규모 장기 임대용지를 추가 확보해 공급할 계획이다.

도는 새만금개발청과 협력해 현대차 그룹은 물론 협력사 및 산업별 전후방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임대용지를 조성하여 기업의 초기 투자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 및 벤처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기업성장센터를 건축입주 시설 60실)에 새만금산단에서 대기업들과 함께 산업밸류체인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도는 투자기업이 전북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세제 부담 경감과 고용·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도는 저출생 대응과 기업의 고용 확대를 함께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 13일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자녀 직원 채용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제도를 개선했다.

2인 이상 다자녀 직원을 채용한 기업에 1인당 최대 900만원(5인 이상 초다자녀는 1,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최대 600만원에서 상향된 수



선운사 지장보살상 등 3점 선보이는 불교중앙박물관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과 선운사는 특별전 '도술산 선운사 선체에 들고 구름에 높다 언론공개회를 서울 종로구 불교중앙박물관 전시실에 갖고 도술산 내원공 '금동지장보살좌상' (왼쪽부터), 선운사 지장보살 '금동지장보살좌상', 참담암 지장전 '석조지장보살좌상'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뉴스시스 제공)

준이다. 농공단지 내 유류 공장의 신속한 재가동과 산업 활력을 이어가기 위해 기업의 취득세 부담 경감도 이어간다. 또한 지방투자 기업의 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산업통상부 주관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 공모에 2026년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유치 여건도 개선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가 비수도권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비율 산

정 시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을 확대하고, 외부지역 임대료 산정 방식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개편 중이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과 협업체 투자협약 기업의 실무자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0만호 기자

## 가장 안전韓 글로벌 축제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 29일부터 전주시 일원서 시, 영화제 성공 위해 안전 등 분야별 점검 태세 강화

영화의 도시 전주시가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를 가장 안전한 글로벌 축제로 만들기로 했다. 시는 오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10일간 고시동 영화의 거리 등 전주시 전역에서 전세계 54개국 237편의 영화와 함께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가 개최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시는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영화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영화제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행사 공간 조성을 위해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불법주점차 단속 △영화의 거리 정비 △거리 환경 정비 △불법광고물 정비 △소음억압소 지도·점검 등을 추진한다. 시는 또 영화제 조직위원회 및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그 어느 해보다 안전한 영화제가 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여기에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도 지난 26년간 영화제의 숨은 일꾼이자 든든한 동반자였던 자원활동가(지프지기) 400여 명이 활동하게 된다. 자원활동가들은 각각의 장점과 경력, 기량 등을 고려해 △한국영화팀 △해외영화팀 △홍보미디어팀 등 11개 팀으로 나뉘어 영화제 최일선에서 성공적인 영화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게 된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여 명의 시니어 지프지기가 자원활동에 참여해 다양한 연령층과 함께하는 영화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올해로 제27회를 맞는 전주국제영화제는 동시대 영화의 새로운 흐름과 실험적 시도를 조명하며, 국내외 관객과 영화인들이 함께하는 아시아 대표 영화축제로서 다시 한번 전주의 밤을 영화로 물들일 예정이다. 올해 영화제에는 한국영화 공모에 1,785편, 국제경쟁부문 공모에 421편이 출품돼 최종적으로 54개국 237편의 다양한 영화가 국내외 관객들을 맞이한다. /권희성 기자

## 치매 어르신 재산 보호... 공공신탁 서비스 도입

국민연금, '안심관리 서비스' 오늘부터 시범 시행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신탁 서비스 도입에 나선다. 국민연금공단은 22일부터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재산관리 능력이 저하된 고령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정지원계획 수립부터 실제 지출 관리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이다. 이번 사업은 고령화 심화로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이를 악용한 사기나 재산 갈취 사세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데 따른 대응책이다. 정부 역시 해당

서비스를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반영해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비스는 본인의 동의 아래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공단이 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료비, 요양비, 생활비 등 필요한 지출이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며, 재산이 본인을 위해 사용되도록 돕는 '사회서비스' 성격을 갖는다. 이용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기본으로 하되, 65세 미만 치매 환자 중 치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